

#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97호  
2008. 10.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김명수 ■ 편집인 김도기, 천영진  
■ 주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라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TEL • FAX 043-231-2719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 학습과학을 지향하는 교육학

김 태 완 (계명대학교)

### 1. 교육학의 학문적인 기저는 안전한가?

우리 사회에는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나아가, 자신이 교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교과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교육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사람들이 초중고와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16년이란 긴 시간동안 많은 교사와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예민한 감수성으로 잘 지켜 보아왔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과 그렇지 못한 가르침을 구분하는 안목을 형성한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전문성은 무엇이며, 교육학은 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예비교사에게 일반인이 가진 것보다 더 분명한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계 내부에서는 흔히 교수(Teaching)를 온 몸으로 가르치는 예술(Art)적 행위에 비유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수와 학습을 과학(Science)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초임 교사 시기를 지나 그 열정이 식으면 전문성을 의심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학교는 학생을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길러서 배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학교교육은 교수(Teaching)보다 학습(Learning)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소위 학습과학기술(Learning Science and Technology)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학습과학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의 뇌가 구현하는 마음은 어떤지, 지능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인지 또는 학습메커니즘은 어떤지, 인간의 지능과 마음을 어떻게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하는 등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학습과학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최근 미국의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습과학을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즉, 개인의 학습동기를 탐구하는 심리학, 뇌과학과 신경과학(Brain Science/Neuro Science),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교육학 등의 교수들이 학습과학 전공을 만들어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다.

## 2. 인지과학의 발전을 주목하자

인지과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은 IBM의 Almaden 연구소가 과학기술의 대상 세계를 다음과 같이 2-5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인지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Spohrer, J. C. & Engelbart, D. C., The Coevolution of Human Potential and Converging Technologi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Vol. 1013, pp 50-82, May 2004).

2체계	5체계	관련 학문
자연체계 (Natural Systems)	물질체계 (Physical systems)	물리학, 천체물리학, 나노기술 등
	생명체계 (Living Systems)	생물학, 화학, 동물생태학, 발생학 등
	인지체계 (Cognitive Systems)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아동발달과학 등
인공체계 (Human-Made Systems)	사회체계 (Social Systems)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조직행동학 등
	기술체계 (Technology Systems)	테크놀로지디자인과학, 인간공학, 바이오닉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미국에서는 인지과학을 자연체계(Natural Systems)와 인공체계(Human-Made Systems)를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인지과학을 비자연과학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 뇌, 인간과 인공물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재개념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의 정보처리체계는 인간의 정보처리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컴퓨터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같은 정보처리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정보처리 원리는 다시 인간이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뇌의 작용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신경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지과학의 발전을 가져 오고 있다.

좌뇌와 우뇌의 기능 차이를 연구한 Sperry 교수는 과거의 물리학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관(모든 것은 미시적인 물질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상향적으로,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미시적 일방향적 인과적 결정론)으로부터 양방향적 결정론(거시적 심리-인지적 요인도 하향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엮으로써 1981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수상하였다(Sperry R. W., 1993, The impact and promise of the cognitive revolution, American Psychologist, 48,8,878-885.).

이것은 최근 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과 복잡계이론, 경제학에서 진화경제학 또는 복잡계경제학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발달된 뇌촬영기계로 인간의 뇌를 찍어보면, 천재의 뇌는 뇌 전체가 환하게 밝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을 물리, 화학, 생물 등으로 학문을 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 발전(divide and conquer)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분화된 연구를 종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실제로 자연계 현상은 통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학문의 통합 또는 융합적인 접근(converged and hollistic approach)의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으며, 이는 미래 융합과학기술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 3. 미래 융합과학기술 사회에서의 학습과학

미국의 상무성과 과학재단은 미래의 융합과학기술을 제시하고, 그 목표는 인간의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으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상무성과 과학재단이 2002년 발표한 미래 융합과학기술(convergent technologies)은 네 가지인 NBIC으로 요약된다(Gingrich, N., Vision

for the Converging Technologies, In Loco & Bainbridge).

미래융합과학기술(NBIC)	내 용
NT	나노과학과 기술
BT	유전 공학을 포함하는 생명공학과 생명의학 기술
IT	높은 수준의 계산력과 통신을 포함하는 정보기술
CogT	인지신경과학, 인지심리학을 포함하는 인지과학과 기술

캐나다는 2003년 미국의 틀을 따랐으며, 유럽은 2004년 CTEKS(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를 발표하였다(EC Commission Technology report). 유럽은 크게 5가지 즉, Nano, Life sciences, IT, Social sciences, Humanities 로 구분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13가지 즉, Nano(나노)-Bio(생명)-Info(정보)-Cogno(인지)-Socio(사회)-Anthro(인류학)-Philo(철학)-Geo(지리)-Eco(환경)-Urbo(도시)-Orbo(우주)-Macro(거시)-Micro(미시) 로 나누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유럽의 차이는 미국과 캐나다는 인지과학을 자연과학에 포함시켜서 미래의 융합과학기술에 자연과학만 제시하였고, 유럽은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뿐만 유럽에서도 인지과학이 미래 융합과학기술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NT, BT, IT에는 관심이 높으나, CogT(인지과학기술)에는 관심과 이해가 매우 낮은 편이며, 따라서 연구와 교육이 부족하다.

인지과학적인 접근에서 인간의 학습(learning)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의학에서는 인체의 작동메커니즘이 연구의 대상이듯이 교육에서는 뇌의 인지 또는 학습메커니즘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유전자염색체(Human Genome) 뿐만 아니라 뇌인지염색체(Brain Cognome) 지도(유전자 수와 염기 서열)가 작성되는 시대가 온다고 믿는다.

앞으로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인지과학기술의 발달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Microsoft's Partners in Learning Program으로 운영되고 있는 Philadelphia School of the Future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지은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학생은 learner 로 부르고, 교장은 chief learner, 교사는 co-learner로 부름으로써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뇌기반 학습과학(BBLS),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s의 연구 등은 교육

과 학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Collective Intelligence, Collaborative Learning 등에 대한 융합적인 연구 결과는 새로운 방식의 개인적, 집단적 교육/학습/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향후 인지 또는 학습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르고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과학기술(Learning Science and Technology)이 교육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I 논단 II

# 교육을 위한 행정과 교육에 관한 행정

천 세 영 (충남대학교)

우리 나라 교육행정학의 발전사를 바라보는 방법의 하나는 교육행정학 교과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초의 교육행정학 교과서는 1957년 강길수 교수님의 “교육행정”(풍국학원)과 1958년 백현기 박사님의 “교육행정학(을유문화사)” 두 권의 명저이다. 이후 몇 권의 책이 있었지만 1965년 김종철 교수님의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교학사)에 이르러 비교적 한국의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화 시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4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필자가 보기로는 더 나은 작업은 없어 보인다. 후학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선생님의 덕이 한 없이 존경스럽기도 하다. 김종철 교수님은 책을 내시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하셨다. 첫째는 아직 ‘교육행정학’이라 할만하지 못하니 ‘교육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둘째는 한국의 교육행정 실재를 좀더 깊게 고찰해보려고 했지만 과학화 수준에는 한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1985년 김종철 교수님은 첫 번째 고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교육행정학 신강”이라는 책을 내시면서도 매우 부끄러워하셨다. 필자도 몇분과 함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학지사)을 썼지만 그것은 교육행정학도 아니고 한국교육행정의 실재를 이론화하지도 못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 언젠쯤 빛을 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필자는 김종철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더 큰 질문은 1965년판 첫페이지에 짤막하게 언급한 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본다. 잠깐 인용해보자.

“교육행정은 자구상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행정’ 또는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 하면 보건에 관한 행정, 군사에 관한 행정이라는 말과 같이 행정활동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관한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와 반면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 할 때에는 교육활동을 특히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행정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려는 입장이라 하겠다.”(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1980, 교육과학사, p.1)

선생님께 교육행정학을 배운지 30여년 가까이 되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교육행정학은 제자리를 못 잡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좁은 지면을 통해 교육행정학회 회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이나마 생각을 모두어보기를 청하고자 한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이른바 교육행정 현상이라고 이루어지는 사태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보고 그것이 과연 교육을 위한 행정인지 교육에 관한 행정인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 사태1. 수학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나라 학생들의 PISA시험에서 수학성적으로 높게 받는다고 해도 교실내에서 학생간의 수학 학습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학생간 격차는 쉬이 발견된다. 중간 정도인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이때쯤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이너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유사한 사태들은 많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못 풀다면 2차함수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수업상황은 어떠한가? 억지로 수준별 수업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그 실태가 어떠한지는 이제 교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자들과 정책관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이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과외선생님을 모셔서 마이너스 개념을 보충하고 인수분해를 보충한다.

학교에서는 왜 못 가르쳐주느냐고 학부모가 묻는다. 교사가 교장이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이, 마지막으로 교육학자들이 거기에 답을 한다. 선생님과 교실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못 배우고 올라와서 그렇다고 한다. 6학년 선생님은 5학년 선생님을 탓한다. 동문서답이 계속 되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좀 머리가 모자란단던지 어릴 때 기초교육이 안되었다든지 가정의 교육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냐고 되묻고, 급기야는 학원을 권유하기까지 한다.

### 사태2.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아이

피아노가 요즈음은 전보다 안 팔린다고 하고 피아노 학원도 전에만 못하다고 한다. 유아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절대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란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필수 과정으로 거친다. 물론 학교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 채로 순전히 엄마와 아이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이다. 정작 피아노를 전공하려면 엄청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정말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아이가 충분한 뒷받침이 어렵사리 대학 피아노과에라도 진학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겪는 후회이다. 차라리 그 열정으로 국영수 공부나 열심히 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 것을 하면 이미 때는 한 참 늦어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왜 학교와 국가에서는 일찍이 발굴하여 집중육성하지 못하느냐고 한다. 아니면 분명히 진로진도를 하여 일반학과에 진학하라고 하던지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학교 그리고 국가와 학자들은 동문서답을 한다. 정말 천재적 재능이 없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고 국가교육제도는 그런 특출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그냥 평균과 최소만을 위할 뿐이라고 말이다.

### 사태3. 취업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야만 하는 전문계고교생

전문계고 졸업생들도 요즘은 거의 모두 대학을 간다. 학부모들도 알고 학생들도 속으로는 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혹시나 더 큰 손해나 보지 않을까, 최소한의 인간대접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비싼 등록금을 마련한다. 대학에 가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이다. 대학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신다. 신기한 것은 그래도 학점은 나오고 졸업장은 나온다. 사실은 그런 신기한 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 와서 별로 새로운 것도 없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어릴 때 확실히 선생님께서 채찍과 훈계로 공부를 하게 하던지 아니면 대학진학보다는 직업진로를 안내해주셨어야 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처럼 어이없는 교육제도를 운영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또 나랏일 하는 분들과 전문가들은 동문서답을 한다. 여러분들이 모두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공부를 좀 못해도 진급시켜주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자신들로서는 책임이 없고 사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런 사태들이 교육행정학의 연구대상인 교육행정 사태임은 분명하다. 교육행정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교사가 교장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하는 일이 분명하다. 위의 사태들과 관련하여 그 교육행정가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이러저러해서 그렇다는 식이다. 정작 아이들은 잘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선생님이 없다고 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우리의 교육행정가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육행정을 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속 시원히 못해주고 있다면 분명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나는 교육행정이라면 모름지기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모든 교육행정가들은 그러려고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우리의 교육행정가들이 본 말전도의 착오에 빠져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과 관한 행정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전자가 늘 교육행정가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그 무엇이 문제가 될 때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저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빠져 왜 그 일을 하는가보다는 그 안의 논리에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고등학생들이 진실로 중학교 단계의 마이너스 개념을 배워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며, 대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고급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도 교사는 그것을 가르

쳐야 한다. 스스로 못 가르친다면 자리를 물러나 다른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이 도리이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든 아니든 여부를 떠나 피아노의 재능을 키워줄 의무가 있으며, 공부하기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 나중에 어려워질 힘든 아이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언젠가는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가질 때까지 갖은 방법을 써보아야 한다. 부모의 마음과 선생님의 지혜가 마주칠 때 안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 왔다.

선생님과 학교가 이러한 엄숙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저 그들을 위해 인사배치의 공평성과 유효리를 따지고 재원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서로 간에 손해 없이 배분하는 교육에 관한 행정, 솔직히 말하면 교육을 핑계된 행정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다 보면 한국에서 교육행정 학이 제자리를 잡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김종철 선생님의 책 제4장 '교육내용의 행정'에서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글을 맺는다.

"교육내용에 관한 기준의 설정은 교육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등한히 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육행정가들은 인사·재정·시설 등 교육활동의 지원조건을 정비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근본을 잊어버리며 본말을 전도(필자 강조)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종철, 앞의 책, 1980, p.117)



## Ⅰ 논단 Ⅱ

### 교육에서 정부와 시장의 한계 : 대안 탐색을 위한 과제

박 상 완 (부산대학교)

전 세계적으로 1980-90년대 이후 교육개혁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쟁, 선택, 자율 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탈규제와 개방화, 민영화,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주요 이념적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정치, 사회 뿐 아니라 교육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발표된 5.31 교육개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세계화, 정보화 담론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를 보

여준다.

정부, 국가의 역할이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경제 부문과 달리 강력한 국가 주도적인 교육개혁에 익숙해져 있던 교육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이념과 그에 기반한 교육개혁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에게도 적응과 학습과정이 요구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교육 분야에서 중시되어 온 핵심 가치는 고교 평준화에 집약되어 있듯이 경쟁, 선택, 자율보다는 평등, 형평성, 기회균등, 통일성이며, 교육개혁의 추진 방식도 대통령 자문기구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통제주의적 교육과 획일적 평등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있어 왔지만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있어서 교육학적 배경을 갖지 않은 학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통제주의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획일적 평등성의 대안으로 수월성을 중시하는 교육체제를 주장해온 교육학자들이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다. 한편으로 최근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맞서 내세울만한 실질적인 대안과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도 분명하지 않다. 교육행정학의 학문 공동체가 이러한 이념적 논쟁을 공개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룰 만큼 '개방적'이지 않고, 이론적 담론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정보의 공개, 교장과 교사에 대한 평가, 교장 공모제의 시범적용, 고등학교 선택제 도입, 국제 중학교의 설립 등 경쟁, 선택, 자율, 평가, 다양화 등을 표방하는 다양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보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초중등 분야에서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의 대상과 수준, 공개된 정보의 활용 방안에 따라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의 공개는 단순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행정기관이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통해 경쟁과 선택만을 강조할 경우 학교 교육은 개선되지 않고 학교간 격차만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학교정보 공개를 일찍부터 시행해 온 선진국에서도 학교간 경쟁과 선택제로 인해 초래되는 계층간 '격차'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성과는 미미

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의 학교 보고서(School Report)에서도 학교정보 공개와 학교간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영국의 교육개혁은 계층간, 공사립학교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정보의 공개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쟁과 선택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교육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교육공급자간의 경쟁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책무와 평가의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서 정부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책무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강화하는 "평가적 국가(evaluative state)"로 그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교육개혁에서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기준청(OFSTED)과 같은 강력한 국가기관이 학교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NCLB 법에 기초한 학력평가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은 교육에서 국가와 시장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학의 학문 공동체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쟁, 선택, 자율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대응할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정학이 상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과 연계되어 있다. 경쟁, 선택, 자율 등 신자유주의적 핵심 가치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러한 가치는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가치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학교는 Hargreaves가 강조하듯이 지식경제의 파괴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연민(동정), 공동체, 코스모폴리탄주의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덕이나 공익은 이기심과 달리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며, 종래 국가통제주의적 개혁이나 시장중심적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행정학 학문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관점, 패러다임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활발하게 토의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앞에서 제시한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담론은 경제적 시각을 대변하는 이단아로 치부되거나 교육의 중요성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척된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논의를 교육학계가 독점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이념적 가치와 실천적 대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학회 활동 안내

### 1.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 활동

#### ❖ 제148차 춘계 학술대회

- 주 제 : 교육행정학 연구의 최신 동향
- 일 시 : 2008년 4월 26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1,208호)
- 프로그램

#### [session I]사회: 홍창남(부산대)

1. 패널분석을 통한 1단계 BK21 사업의 연구성과 분석 / 박경호(경운대)
2.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 중요도 및 곤란도에 관한 인식 / 김성열, 김정희(경남대)
3. EBS 수능강의 정책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김병모(고려대)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제도 평가 / 김태환(교과부)
5.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특성분석-"교육대학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사례를 중심으로 / 정성수(인제대)
6.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보엽(교과부)
7. 한국 교육행정학자의 학문 공동체 분석 / 양정호(성균관대)

#### [session 2]사회: 김병찬(경희대)

1. 교사의 수업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 박균열(고려대)
2. 조선시대 지방교육행정의 특성 분석 / 박수정(충북대)
3.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경영 방향 탐색 / 최경노(덕송초)
4.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의 입법영향평가 / 이덕난(중앙대)
5. 지식기반에 근거한 교육전문직의 직능개발 방향 탐색 / 최경희(충북교육청)
6. 학교의 공동체 지향성과 조직현신도의 관계 / 정일화(대전이문고)
7. 새 정부의 학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양성관(건국대), 전상훈(고려대)

####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1차

- 주 제 :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 일 시 : 2008년 6월 14일(토)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과학관 230호

• 프로그램

1. 단위학교의 학습조직 수준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허은정(서울대학교)
2. 그룹평가를 활용한 중등학교 다면평가모델 개발 연구 / 서종철(강원대학교)
3. 교육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공정성 가치의 적용 가능성 탐색 / 장진욱(경북대학교)
4.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연구 / 양승삼(한국교원대학교)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비용·편익분석 -교무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 김수구(충남대학교)

### ❖ 제149차 하계 학술대회

• 주제: 교육행정학의 최근 연구동향

• 일시: 2008년 8월 20일(수) 10:00-17:40

•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351호(대형강의실1)

• 후원: 전북대학교

• 프로그램

사회 : 조동섭(경인교대), 정수현(서울교대)

기조발표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 김명수(본회 회장, 교원대)

주제발표

주제 1.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사례 / 염민호(전남대)

토론자 / 박남기(광주교대), 유평수(전주대)

주제 2: 교육정책학 최근 연구동향 / 정성수(인제대)

토론자 / 이일용(중앙대), 김동석(한남대)

주제 3: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박소영(KEDI)

토론자 / 신상명(경북대), 김이경(충남대)

주제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현황과 과제 / 하봉운(경기대)

토론자 / 최준열(공주대), 주철안(부산대)

주제 5: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실증분석 / 김현진(국민대)

토론자 / 한유경(이화여대), 유길한(진주교대)



교육행정학의 최근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200여명의 회원께서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과 학문적 성찰로 깊이 있는 학술 대회를 이루었다. 사진은 발표자 전체와 사회자가 함께 하는 종합토론의 모습이다.

###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2차

- 일 시 : 2008년 10월 11일(토) 13:00-18:00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 주 제 :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 주 최 :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대학교교유과학연구소
- 프로그램

좌장 : 김병찬(경희대학교)

1. 학교컨설팅의 쟁점 탐색에 관한 연구 / 김정현(서울대)
2. 교사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사평가 준거의 탐색과 타당화 / 이두영(인천대)
3.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인식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 김정순(경북대)
4. 학교장의 슈퍼리더십과 교사의 셀프리더십, 교사의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조직건강과의 관계 연구 / 박용진(인하대)
5. 교육감의 핵심 역량 탐색 / 박선용(경북대)



각 대학의 졸업 요건 강화에 발맞추어 예비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발표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예비연구자 학술포럼은 작지만 알찬 시간이 되었다. 발표자와 참여자 모두가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 발표로 모두가 뜻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사진은 차기 회장님이신 신재철 전남대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신 모습이다.

## 2.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 활동 계획

### ❖ 제150차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 2008년 11월 29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프로그램 안내

사회자 : 조석훈(청주교육대학교)

1. 복합비용함수를 활용한 사립대학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분석 / 오범호(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대학조직의 효과성평가에 관한 연구-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경합가치모형접근법- / 이황원(서울대학교)
3. 학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감성지능 및 직무만족이 교사의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김철구, 강경석(인하대학교)
4. 초등학교의 반성 중심 학습조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신윤섭(경북대학교)
5. 한국의 새정부 교육개혁의 도전과 과제 / 천세영(충남대학교)
6. 지역교육청 직무분석 / 김민희(충북대학교)
7. 교육행정의 학습과학적 접근: 교육적 의미와 정책점 시사점 / 박선형(동국대학교)  
포스터발표: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교직수행(교직수행효능감, 교직현신)에 미치는 영향 / 박청원, 강경석(인하대학교)

#### ❖ 제36차 연차대회 및 151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8년 12월 13일(토)
- 장 소 : 경인교육대학교
- 주 제 :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가능성과 한계
- 프로그램 안내

기조발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가능성과 한계 / 노종희(한양대)

- 1주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역사적 기반 / 조동섭(경인교대)
- 2주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 / 허병기(교원대)
- 3주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내용적 기반 / 천세영(충남대)
- 4주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방법적 기반 / 신현석(고려대)

## 회의 개최 현황

####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소 : 서울 수라온
- 안건 : 2008년 사업계획 수립 및 분과위원 선정

#### ❖ 제1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소 : 서울 수라온

- 안전 : 전문서 발간 계획 검토

####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시 : 2008년 4월 2일(수) 9:00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 안전 : 2007년 학술지 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규정 정비

#### ❖ 제2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8년 4월 14일(월) 08:00
- 장 소 : 서울 팔래스 호텔
- 안 건 : 전문서 발간 세부 내용 협의

####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년 4월 18일(수) :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 안전 : 2008 사업계획 심의 의결

#### ❖ 제1차 임시 총회 개최

- 일시 : 2008년 4월 18일(수) :00
- 장소 : 강원대학교
- 안전 : 2008 사업계획 의결

#### ❖ 제1차 부회장 선출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8월 20일(수)
- 장소 : 전북대학교
- 안전 : 2008 부회장 선출 위원회 일정 의결

#### ❖ 제1차 학술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8월 20일(수)
- 장소 : 전북대학교
- 안전 : 2008 하반기 학술대회 관련 의결

#### ❖ 제2차 부회장 선출 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9월 20일(토)
- 장소 : 서울
- 안전 : 2008 부회장 후보자 의결



### ❖ 제2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10월 4일(토)
- 장소 : 서울
- 안건 : 2008 하반기 학술지 발행 관련 의결

### ❖ 한·일 교육행정학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9월 27일(토)
- 장소 : 서울 장충동
- 안건 : 한일 교육행정학회 공동 세미나 및 교류방안



2008년 9월 27일(토) 오후 12시에 서울 장충동 송원식당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학회 회장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김명수(교원대) 본회 회장, 신재철(전남대) 부회장, 김이경(충남대) 국제학술위원장, 한유경(이화여대) 국제학술부위원장, 김도기(교원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일본측 대표로 마사히토 오가와(방송대) 회장, 마사요시 기요하라(효고현립대) 국제교류위원장, 사노 미찌오(시코쿠학원대) 국제교류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이날 중단하기로 한 한·일 교육행정학회 공동세미나를 대신하여 한국과 일본 외에 중국, 미국 등의 국가를 참여시키는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6권 (2888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게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입금계좌: 농협 306-02-130364,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원고 작성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참조)

##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배호순 저서 출판 : 교육프로그램평가론(원미사, 2008. 8.), 평가하는 학교사회 : 한국교육평가체제를 말한다(교육과학사, 2008. 9.)

- 주삼환: 도덕적 리더십 (Thomas Sergiovanni, Moral Leadership 번역서. 시그마프레스)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8. 1. 1 ~ 2008. 10. 30)

- 일반회원: 국승오, 권순형, 김경량, 김성, 김연성, 김영화, 김용, 김전원, 김정현, 김종기, 김지영, 류민영, 문정수, 박민정, 박선용, 박승란, 박용균, 박용진, 박철웅, 박형우, 백종진, 서보근, 서용희, 설인환, 송영균, 송영호, 신상팔, 안병천, 양원영, 오세희, 우상기, 우종선, 유지영, 이건식, 이난영, 이덕난, 이동찬, 이맹희, 이민원, 이쌍철, 이연숙, 이은주, 이정민, 이황원, 임운섭, 임정준, 임현수, 정소성, 정순일, 정애현, 정용우, 최창익, 하종진, 홍신기, 황연성(이상 55명)
- 학생회원: 강아영, 강희경, 고성진, 김금순, 김민지, 김시영, 김종만, 김지선, 김효진, 박명신, 박선용, 송정기, 유성희, 이정민(교원대), 천영진, 홍서연, 황은선(이상 17명)
- 기관회원: 경기도교육청, 서울여대(이상 2개 기관)

◎ 연회비 납입현황(2008. 1. 1 ~ 2008. 10. 30)

- 일반회원: 강경석, 강경수, 강보길, 강석봉, 강영택, 고전,곽상기, 권춘기, 김기은, 김도기, 김두겸, 김명수, 김병운, 김성규, 김세호, 김옥예, 김용, 김용갑, 김장래, 김재웅, 김정순, 김철구, 김형돈, 김화순, 나윤선, 나임, 남기윤, 노관민, 박경호, 박균달, 박균열, 박상남, 박선미, 박수정, 박영달, 박우진, 박인, 박정희, 박종필, 박주호, 박준기, 박춘식, 신동한, 신원학, 신재흡, 신정철, 안길훈, 양승삼, 염민호, 오대수, 오세희 오혜정, 위덕대, 유길한, 유평수,윤길준, 윤재열, 윤홍주, 이광숙, 이광현, 이기명, 이기용, 이낙중, 이두영, 이상철, 이석경, 이석열, 이윤식, 이인회, 이일용, 이재덕, 이재호, 이정미, 이정진, 이정화, 이제봉, 이진철, 임연기, 임혜경, 장원규, 전상훈, 정모진, 정성수, 정수현, 정일화, 정재균, 정제영, 정지선, 정하소, 정희욱, 조동섭, 조성구, 조재규, 조희욱, 주현준, 천미경, 최경희, 최미리, 최준렬, 허봉운, 한경수, 한광물, 한은숙, 허병기, 현경석, 홍철희, 황윤한 (이상 107명)
- 학생회원: 구자원, 김금순, 박귀성, 이성욱, 이수진, 최원석(이상 6명)
- 기관회원: 가톨릭대성심, 고려대, 관동대, 교원대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도서관, 남서울대학, 대구교대, 부경대, 사) 한국교육, 서울대, 서울대도서관, 안양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주교대, 충남대, 평택대학, 한국교총(이상 19개 기관)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http://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mailto:kssea1@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홈페이지에 작성하시는 경우 혹시 타인에 의해 오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의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http://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사무국으로 전화(043-231-

2719) 혹은 메일(ksseal@hanmail.net)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학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단체메일을 수신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l@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비 납부 안내

-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 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 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학생회원은 직업이 없는 전일제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합니다.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농협 306-02-130351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 ksseal@hanmail.net
- 전화번호 · Fax: 043)231-2719
- 회 장: 김명수 (043-230-3433, 010-3337-6159)
- 부회장: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사무국: 김도기 사무국장(043-230-3413, 017-708-0174)  
천영진 총무간사(043-231-2719, 018-595-0525)  
안병천 편집간사(010-3771-9703)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